

지속가능한 지리학 발전을 위한 지리지식의 순환체계

문 남 철*

Circulation System of Geographical Knowledg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graphy

Moon, Nam-Cheol*

요약: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발달해온 지리지식은 (순수)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 응용지리지식, 대중지리지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리지식은 이들 영역간 지식의 생산과 전달, 응용 및 적용,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순환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한 영역에서의 지식순환의 단절은 다른 영역의 지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리학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지리학 발전을 위해서는 (순수)학문지리에 의한 지식의 생산과 축적, 학교지리에 의한 지식의 전달, 응용지리와 대중지리에 의한 지식의 사회적 활용과 일상생활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선순환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지식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어: (순수)학문지리, 학교지리, 응용지리, 대중지리, 지식순환체계

Abstract: The geographical knowledge is composed of academic geographical knowledge, school geographical knowledge, applied geographical knowledge and popular geographical knowledge according to the diverse social need and demand. And the geographical knowledge has developed through the knowledge circulation system, which is connected to knowledge production, delivery, application and to reproduction among these knowledge fields. The discontinuity of knowledge circulation can lead to crisis of geographical whole.

Therefo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graphy, it is necessary to firmly build a virtuous circulation system of geographical knowledge which is linked to a knowledge production and accumulation by an academic geography, knowledge delivery by a school geography, knowledge social application by an applied geography, knowledge application in everyday life by a popular geography and knowledge reproduction by an academic geography.

Key Words: academic geography, school geography, applied geography, popular geography, circulation system of geographical knowledge

1. 서론

학문은 사회 속에서 배태되고 발전하며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변모한다. 오늘날 학문은 신자유주의 논리의 적용으로 ‘인간다운 삶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실용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학문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리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사회적 실용성과 대중적 효용성이 부족한 학문은 사회에서 소외된 학문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 지리학은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여 왔다. 1960~70년대 경제성장정책 및 국토개발계획과 함

께 지리교육은 국토의식을 함양하고 발전적 가치를 고취시키기 위해 국민교육으로서 중시되었다. 그리고 1970~80년대에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더불어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토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문지리의 지식이 요구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많은 대학에 지리 관련학과가 설치되었다¹⁾.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학문과 교육에 신자유주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국민의식 및 국토의식을 함양하고 발전적 가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시되었던 지리교육은 국민교육에 대한 지원의 단절과 함께 그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학문지리는 서구의 아카데미즘 지리학의 도입으로 전공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양적 및 질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위상은 증대되었지만, 극단적인 세분화

*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Instruct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Seowon University)(mnc83@hanmail.net)

와 전문화로 학문지리의 지식과 대중이 인지하는 지식 사이의 간극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리지식의 사회적 인식은 약화되고 있다(Frazier, 1994; 류재명, 2004; 이종원, 2007).

한국사회에서 지리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든 지리 관련 종사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박삼옥, 2003; 권동희, 2007; 김대훈, 2010; 남영우, 2010; 옥한석, 2010; 이철우, 2011). 우선, 위기의 원인으로는 기초연구의 부족과 지리학적 분석 방법론의 취약(박삼옥, 2004), 지리교육의 약화(김대훈, 2010), 사회참여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박삼옥, 2003; 최병두, 2006), 지리학의 대중화 노력의 부족(권동희 2007; 옥한석, 2010)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위기의 해결방안으로는 기초연구 중심의 전문화 강화(박삼옥, 2004; 권용우; 2009), 지리지식의 보급을 위한 지리교육의 활성화(박삼옥, 2003; 최병두, 2006; 김대훈, 2010), 지리학적 지식을 매개로 한 사회적 참여의 확대(박삼옥, 2003; 최병두, 2006), 국민 속에 파고드는 대중화의 확대(박삼옥, 2003; 권동희, 2007; 권용우, 2009; 옥한석, 2010)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지리학의 위기는 지리지식의 전문화와 응용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부족과 지리교육의 약화가 그 원인이며, 위기의 해결방안은 지리지식의 전문화와 응용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확대와 지리교육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지식의 전문화와 응용화, 대중화, 교육화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지리지식의 순환체계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지식은 전문화에 의해 생산되어 축적되고, 교육화를 통해 전달되며, 응용화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활용되고, 대중화로 일상생활에 적용된다. 그리고 교육화와 응용화, 대중화로 형성된 지식은 다시 전문화를 통해 체계화된 지리지식으로 재생산되는 순환체계를 이룬다. 이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순환의 단절은 다른 영역의 지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리학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리지식의 영역과 영역간 지식의 순환체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지리지식의 영역과 영역간 지리지식의 순환체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리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류재명, 2000)와 지리지식의 대중적 인식을 높이려는 연구(Bonnett, 2003; 이종원, 2007; 이희상, 2008)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류재명(2000)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리교육의 과제에서 지리학(학문지리)과 지리교육(학교지리)의 관계를 ‘먹이사슬’로 설명하면서 지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지리와 학교지리의 공존 및 공영발전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onnette(2003)는 지리학을 세계적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문 지리적 창의성의 대중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학문지리와 학교지리, 대중지리의 특성 및 지식의 순환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종원(2007)은 학문으로서의 지리와 대중들이 인지하는 지리의 영역 사이에는 지리지식의 간극이 존재하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리학의 대중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희상(2008)은 대중지리와 학교지리의 문화적 텍스트로서 모형소설 읽기를 제안하면서 대중지리와 학문지리, 학교지리의 특성과 지식의 순환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지리교육의 질적 도모와 지리지식의 대중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지리지식의 영역과 영역간 지식의 순환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리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리지식의 영역과 영역간 지식의 순환체계, 그리고 상생방안을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리지식의 순환체계를 고찰하기 위해 지리지식의 영역을 지리학 위기의 원인이자 위기의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순수)학문지리지식(전문화)과 학교지리지식(교육화), 응용지리지식(응용화), 대중지리지식(대중화)으로 구분하였다²⁾. 세부적인 고찰내용으로는 우선,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리지식의 영역과 영역간 지식순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별적인 관점에서

각 영역별 지리지식의 특성 및 영역간 지리지식의 차이와 영역간 지리지식의 순환체계 및 상생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연구방법은 기존에 발행된 국내·외 문헌들을 이용하여 고찰하는 서술적인(descriptive method)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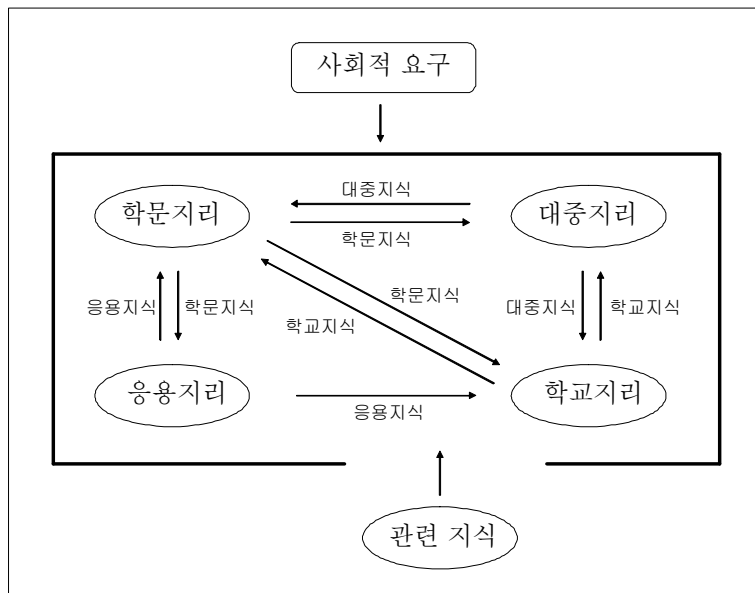
2. 지리지식의 영역과 영역간 지식순환

지리지식은 인간이 주변 환경에 대해 갖는 호기심을 대리 만족시켜주기 위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대중지리지식과 응용지리지식, 학교지리지식, 학문지리지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15세기 탐험과 항해, 식민지 개척으로 새로운 지리적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지리지식은 지리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게 대중화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민족주의 등장과 제국주의 침탈, 식민지 쟁탈, 국제교역의 확대경쟁에서 세계 각 지역의 자원과 산업, 인간생활 등에 관한 지리적 정보가 요구되었고 지리지식은 이러한 요구에 가장 적절하게 응용되었다. 또한 19세기 말 민족주의 이념의 고취와 제국주의의 강화, 식민지 개

척, 국제교역의 확대에서 지리지식의 가치와 유용성이 인정되면서 대학에 지리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지리와 지리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지리가 등장하였다(Chevalier, 1997). 그 결과 지리지식은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 응용지리지식, 대중지리지식의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지리지식은 이들 영역간 지식의 생산과 전달, 응용 및 적용,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순환체계를 지니게 되었다.

학교지리와 학문지리가 제도화된 이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지식은 학문지리에서 생산·축적되어 학교지리를 통해 전달되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응용되고, 대중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지식의 순환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리지식의 순환체계는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이 학교지리와 응용지리, 대중지리로 전달되어 활용되고 적용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된 지식이 다른 여러 영역으로 전달되어 이용되는 쌍방향적인 방식을 보인다. 다시 말해, 지리지식의 생산과 축적이 학문지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식의 전달이 학교지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응용지리와 대중지리는 지리지식을 소비만 하는 영역이 아니다. 지리지식은 학문지리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



자료: Chevalier(1997)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1. 지리지식의 영역과 영역간 지식의 순환체계

핀 넓은 지식의 생산영역과 학교지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지식의 전달영역이 존재한다. 지리지식은 학문지리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학교지리에서도 생산되고, 높은 실용성을 지닌 지식은 응용지리에서 생산된다. 또한 대중적인 지리지식은 일상생활에서의 직접적인 경험과 대중매체에 의한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그리고 지리지식은 학교지리를 통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지리와 지식을 적용하는 대중의 일상생활 및 대중매체에 의해서도 전달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생산된 지리지식은 다른 영역으로 전달되어 새로운 지식생산에 활용된다.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은 학교지리와 응용지리, 대중지리에 전달되어 학교지리지식과 응용지리지식과 대중지리지식을 생산하며 학교지리와 응용지리, 대중지리에서 형성된 지식은 다시 학문지리로 이전되어 새로운 학문지리지식을 생산한다. 또한 학문지리지식은 학교지리를 통해 전달되어 대중지리지식을 형성하고, 실용적인 응용지리지식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중지리지식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강조하는 학교지리로 이전되어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에 활용된다. 즉 각 지식영역은 지식의 생산과 전달, 활용 및 적용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지리지식의 영역은 기능에 의해 구분될 뿐만 아니라, 지식의 법적·행정적 제도화와 지식의 가치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지리

지식과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지리지식은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지식을 형성하는 교육체제가 법적·행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응용지리지식과 대중지리지식, 특히 대중지리지식은 지식의 형성이 법적·행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식의 가치는 주로 사회적 실용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효용성에 의해 평가된다. 그리고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은 미래사회의 이상적인 생활공간과 바람직한 인재양성을 위해 과거 및 현재의 지식을 이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지식을 생산하는 반면에 응용지리지식은 현실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거 및 현재의 지식을 활용한다. 또한 대중지리지식은 대중의 지리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과거 및 현재의 지식을 이용한다. 다시 말해, 지리지식은 미래와 현재, 과거의 지식이 영역사이에서 전달되어 활용된다.

그리고 각 영역의 지리지식은 인접학문의 관련 지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한다. 학문지리는 인접학문으로부터 관련지식을 받아들여 지식의 생산영역을 확대하며 학교지리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육학적 지식을 이용한다. 그리고 응용지리는 사회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인접 응용학문의 관련지식을 활용하며 대중지리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인접학문의 대중지식을 함께 이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지식은 (순수)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 응용지리지식, 대중지리지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영역

표 1. 학문지리와 학교지리, 응용지리, 대중지리의 비교

	학문지리	학교지리	응용지리	대중지리
주요목적	미래사회의 이상적인 생활공간 건설	국가와 사회가 요청하는 인간양성	현실사회의 문제해결	일상생활의 지리적 현상과 사실의 이해
주요기능	지식의 생산과 축적	지식의 전달	지식의 활용	지식의 적용
추구가치	진리	진리와 효용성	사회적 실용성	일상생활의 효용성
지식특성	미래 및 현재의 지식	현재 및 과거의 지식	과거 및 현재의 지식	과거 및 현재의 지식
지식한계	대중이 인지하는 지식과의 괴리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된 지식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의 규범적 문제	단편적이고 과편적 지식

은 지식의 순환체계를 통해 상호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다음은 각 영역별 지리지식의 특성 및 영역간 지리지식의 차이와 영역간 지리지식의 순환체계 및 상생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1)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 대중지리지식 간의 관계

(1)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의 특성 및 차이
19세기 후반 국토애를 통한 국가이념의 강화와 애국심의 고취, 국익을 위한 국제정세의 파악 등 국가 및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학교지리와 학문지리가 대학에 도입된 이후, 학문지리는 지리지식을 생산·축적하고 학교지리는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다. 이에 따라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은 오랫동안 동일시 되어왔으며, 이러한 관계는 대학교수의 학교지리 교과서 집필과 교육과정 개편 참여, 학교지리 교과서에 대학교재의 인용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은 동일시 되어왔기 때문에 두 영역의 지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서태열, 2002). 그러나 학문지리와 학교지리는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은 차이가 존재한다. 학문지리는 미래사회의 이상적인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리적 현상과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문지리지식은 학문지리에서 밝힌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사실에 대한 원리와 법칙,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학교지리는 국가 및 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의 인간을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교지리지식은 학문지리지식으로부터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선택하여 구성한 지식이다(Biddle, 1985; Winter, 2009). 그러므로 학문지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리지식이라 할지라도 교육적으로 가치가 없다면 학교지리지식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리고 학교지리지식은 학문지리지식이 의미의 변형 없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지식을 학생들에게 바르게 전달

하기 위해 학습자의 연령과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선택하여 조직한 지식이며, 또한 학생들에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학적 교수-학습방법이 적용된 지식이다(박선미, 2004).

(2) 학문지리와 학교지리, 대중지리 간의 지식 순환 및 상생방안

학문지리와 학교지리는 지식의 생산과 전달, 재생산의 과정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학문지리는 학교지리의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모 학문일 뿐만 아니라,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은 학교지리에서 활용되는 지식의 근원이 된다. 비록 학교지리지식이 응용지리와 대중지리에서 형성된 지식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지리지식은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에 바탕을 둔다. 또한 학문지리에서 사용하는 사고의 틀은 학교지리에서 지리지식을 인식하는 방법과 범위를 규정하며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개념과 내용, 체계는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의 핵심요소가 된다.

반대로 학교지리지식은 근본적으로 학문지리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지리에서 형성된 지식과 습득된 능력 및 태도는 학문지리지식의 재생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류재명, 2000). 일반적으로 학교지리, 특히 고등학교의 학교지리는 대학에서 학문지리의 선택으로 연결된다(Harm, 2005). 따라서 학교지리를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문지리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학문지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교지리의 약화는 모 학문인 학문지리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한 학문지리의 침체는 또다시 학교지리를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2009년 교육과정개편과 2011년 수능능력시험 개편 등으로 학교지리는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지리의 약화는 대학에서 학문지리를 약화시키고 있다³⁾.

그리고 학교지리는 미래의 대중, 즉 학생들에게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리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며 방법이다.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리지식은 응용지리와 대중매체에 의해서도 전달되지만, 교육학적 교수-학습방법이 적용된 학교지리를 통해서 전달되어 형성된 지식은 평생 지

속된다. 그리고 학교지리는 지리지식에 흥미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학문지리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두기(박선미, 2004) 때문에 대중지리지식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역으로 일상생활과 연계된 대중지리지식은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이해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에 활용된다.

이와 같이 학교지리는 대중지리의 지식형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리지식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⁴⁾, 즉 대중은 지리지식의 가치와 효용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인식한다 하더라도 지리지식의 가치와 효용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학문지리와 학교지리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지리지식을 경험하지 못한 대중들은 학문지리와 학교지리가 핵심적인 분야 없이 사소한 여러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학문지리와 학교지리의 사회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Frazier, 1994; 남영우, 2010). 그러므로 학문지리와 학교지리, 대중지리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지리에 의한

지식생산과 학교지리를 통한 효과적인 지식전달, 대중지리에 의한 지식적용, 그리고 학교지리와 대중지리에서 형성된 지식이 다시 학문지리지식의 재생산과 학교지리지식의 구성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순환체계가 학문지리와 학교지리, 대중지리의 영역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영역 사이의 지식순환과 상생방안은 후술에서 더 부연한다.

2) 학문지리와 응용지리, 학교지리 간의 관계

(1) 학문지리지식과 응용지리지식의 특성 및 차이
지리지식은 현실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지리에서 얻은 지리지식은 무엇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에 응용되기 쉽다. 따라서 학문지리지식은 본질적으로 응용적이며 학문지리지식은 결국 응용지리지식과 연결된다(Bennett and Wilson, 2003; Johnston and Sidaway, 2004; Gregory *et al.*, 2009). 그러므로 지리지식을 학문지리지식과 응용지리지식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문지리지식을 활용하는 응용지리지식은 미래사회의

표 2. (순수)학문지리와 응용지리의 순환

시 기	특 징
첫 번째 응용시기 (19세기 말)	프로이센의 정치·군사·상업적 수요를 위해 실천적 학문으로 등장
첫 번째 순수시기 (20세기 초)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포함하는 전체주의적 철학과 지역개념에 초점
두 번째 응용시기 (양차 대전 사이)	토지이용계획 분야에서 유용성이 입증
두 번째 순수시기 (1945년 이후 경제호황)	이데올로기의 소멸과 공간과학 및 계량혁명으로 대체; - 전체주의적 접근의 종말 - 지식의 하부영역 출현
세 번째 응용시기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와 경제, 환경문제 등 새로운 영역으로 개념 확대; - 학문·공적·사적분야에 응용지리학자의 참여 -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교차접근법 이용 - 순수연구와 응용연구 간의 변증법적 관계의 강조 - 환경변화 연구에서 인간의 역할과 다원론적 인식
세 번째 순수시기 (?)	환경적 이슈의 중요성 증가와 전체주의적 철학으로 회귀?

자료 : Taylor, 1985(Pacione(1999)에서 재인용)

이상적인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간적 원리와 법칙, 구조를 밝히는 학문지리지식과는 상반되는 특성을 나타낸다(Palm and Brazel, 1992). 다시 말해, 학문지리지식은 지리적 현상과 사실에 대한 진리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응용지리지식은 사회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 즉 응용지리지식은 지식의 가치추구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지식의 쓰임에 목적이 있다. 또한 학문지리지식은 이상적인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실사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을 추구하지만, 응용지리지식은 현실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응용지리지식은 인간의 이상적인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공헌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Gregory *et al.*, 2009).

그러나 학문지리와 응용지리의 관계에서 한 영역의 지식이 다른 영역의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문지리지식과 응용지리지식은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로 순환하는 경향을 보이며 발달해 왔다(Taylor, 1985). 19세기 말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지배했던 시기와 세계 대공황(1920~40년대)의 시기,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기에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용지리지식이 우세한 시기였으며, 20세기 초와 194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호황기에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추구하는 학문지리지식이 우세한 시기였다. 다시 말해, 정치적 긴장 및 경기침체로 외부압력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용지리지식이 강조되었고, 정치적 안정 및 경제적 호황기에는 진리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지리지식이 강조되었다.

(2) 학문지리와 응용지리, 학교지리 간의 지식 순환 및 상생방안

학문지리와 응용지리는 지식의 생산과 활용, 재생산의 과정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Berry, 1980). 학문지리는 응용지리가 활용하는 지식의 근원을 제공하는 모 학문이며,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은 응용지리에서 활용하는 지식의 원천이 된다. 즉 학문지리에 의해 밝혀진 공간적 원리와 법칙, 구조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응용지

리지식의 토대가 된다. 또한 미래사회의 이상적인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진리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문지리는 현대사회의 현실적인 생활공간의 개선을 위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응용지리에 사회정의 및 윤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규범의 기준을 제공한다(Sant, 1982).

역으로 응용지리는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에 실험의 장을 제공하며, 응용지리에서 형성된 지식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학문지리지식의 생산을 자극한다(Frazier, 1982). 또한 학문지리지식을 활용하는 응용지리는 지식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학문지리지식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은 신자유주의 논리의 적용으로 진리와 사회적 가치에 의해 인정되기보다는 사회적 실용성에 의해 평가되며, 지식이 사회적 실용성을 지닐 때 사회적 인식과 위상은 높아지고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리지식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응용지리는 진리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문지리지식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실사회와 연계된 응용지리지식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에 활용된다. 학문지리의 원리와 법칙을 활용한 응용지리지식은 학생들에게 공간적 원리와 법칙을 쉽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지리지식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지식의 사회적 실용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응용지리의 발달은 학문지리와 학교지리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응용지리지식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지식의 생산만을 부각시켜 진리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지리지식의 생산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응용지리지식의 토대인 학문지리지식의 약화는 결국 응용지리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문지리와 응용지리, 그리고 학교지리가 상호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지리는 응용지리지식의 토대가 되는 기초지식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응용지리는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의 사회적 실용성을 높여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응

용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이 학문지리지식의 재생산과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학문지리와 대중지리, 학교지리 간의 관계

(1) 학문지리지식과 대중지리지식의 특성 및 차이
지리지식은 인간이 주변 환경에 대해 갖는 호기심을 대리 만족시켜 주기 위해 생산되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성격이 강하다.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은 학교지리와 대중매체, 그리고 비-학문적인 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수용되어 대중지리지식으로 형성된다(Smith, 2001; Bonnett, 2003; Clout, 2005; 이희상, 2008).

학문지리지식과 대중지리지식은 지리적 현상과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추구하는 목적과 지식의 성격은 대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학문지리지식은 미래사회의 이상적인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리적 현상과 사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원리와 법칙, 구조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지식이지만, 대중지리지식은 현실적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지리적 현상과 사실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형성된 지식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지리지식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지리지식과는 달리 대중의 호기심의 대상인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민속지적인 지방소개, 여행수기와 지명 퍼즐, 국가의 수도, 하천과 산맥의 이름 등과 같이 대부분 단순하고 지엽적인 문제들(Chevalier, 1997)이지만, 지리지식에 대한 대중의 통일된 관심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이며 지리지식의 역할을 규정하는 척도가 된다.

하지만 지리적 현상과 사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원리의 구명을 추구하는 학문지리의 입장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단순하고 지엽적인 지리적 현상과 사실만을 중시하는 대중지리지식은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대중지리지식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대중지리에 대한 학문지리의 회피와 그로 인한 학문지리의 대중적 이미지 구축의 실패를 야기함으로써 학문지리와 대중지리는 단절되었고(Bonnett, 2003), 대중지리와 유리된 학문지리의 발달은 학문지리지식과 대중이

인지하는 지리지식 사이의 간극을 확대시켜 왔다. 그리고 학문지리지식을 의미의 변형 없이 그대로 전달해온 학교지리지식 또한 대중이 인지하는 지리지식과의 차이를 벌려왔다.

(2) 학문지리와 대중지리, 학교지리 간의 지식 순환 및 상생방안

학문지리와 대중지리, 학교지리는 지식의 생산과 전달, 재생산의 과정에서 상호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은 학교지리를 통해 전달되어 대중지리지식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대중지리에서 형성된 지식은 학문지리와 학교지리로 이전되어 학문지리지식의 재생산과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에 이용된다. 그러나 대중에 의해 인식되고 형성된 지리지식은 지리적 현상과 사실의 실체를 포착하는 학문지리의 단서가 될 뿐, 그 자체로 학문지리지식이 될 수는 없다.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대중지리지식은 학문지리를 통해 하나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지식으로 재생산된다.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비-학문적 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어 대중지리지식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학교지리를 통해 전달되어 형성된 지식은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학교지리는 올바른 대중지리지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대중매체에 의한 지식전달, 특히 상업주의적 지식전달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으며(이희상, 2008),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 올바른 지리지식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 즉 대중은 왜곡된 지식을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하게 된다. 또한 학교지리를 접해보지 못한 대중은 일상생활에서 지리지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반대로 일상생활과 연계된 대중지리지식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지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에 이용된다. 최근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은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학문지리지식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학생들의 지리적 상상력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중지리지식이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에 도입되고

있다(이희상, 2008). 그리고 대중지리지식은 대중의 지리지식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대중의 지리지식에 대한 이미지는 지리지식의 사회적 위상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중지리지식은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중지리와 유리된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의 발달은 대중들이 인지하는 지리지식과의 차이를 확대시켰고, 그로 인한 대중의 외면은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약화시켜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인구문제와 도시화, 교통문제, 지역격차, 개발과 환경문제 등과 같이 학문지리에서 지리적 이슈로 이해하는 많은 문제들이 학생들과 대중에게 지리지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류재명, 2004), 이로 인한 지리지식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위상은 지리지식을 매개로 한 사회적 참여를 제한해 왔다(Frazier, 1994).

지식의 대중적 효용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인지하는 지리지식의 생산과 학문지리지식의 대중화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지리지식의 발달이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의 제고를 위해 중요하지만, 대중지리지식의 지나친 강조는 보편적이고 단편적이며 현실적인 지리지식만을 생산·보급하여 학문지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학문지리지식의 생산 고갈은 결국 학문지리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대중지리지식의 존립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문지리와 학교지리, 대중지리가 상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지리지식의 발달에 의한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학문지리에 의한 대중적인 지리지식의 생산과 학문지리지식의 대중화, 학교지리에 의한 지리지식의 올바른 대중적 전달, 대중지리에 의한 지리지식의 일상생활의 적용, 그리고 대중지리에서 형성된 지식이 학문지리지식의 재생산과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결론

한국 지리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많은 지리 관련 종사자들은 지리지식의 전문화와 응용화, 대중화의 노력부족과 지리교육의 영향력 감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지리지식의 전문화와 응용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확대와 지리교육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지식의 전문화와 교육화, 응용화, 대중화는 서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순환체계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지식의 영역과 영역간 지식의 순환체계, 그리고 상생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발달해온 지리지식은 (순수)학문지리지식(전문화)과 학교지리지식(교육화), 응용지리지식(응용화), 대중지리지식(대중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지식은 이들 영역간 지식의 순환체계를 바탕으로 발달해 왔다. 일반적으로 지리지식은 학문지리에 의해 생산되어 축적되며 학교지리를 통해 전달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응용되고, 대중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지식의 순환체계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리지식은 학문지리에 의해 생산될 뿐만 아니라 학교지리에서도 생산되고, 실용적인 지식은 응용지리에서 생산되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식은 대중지리에서도 생산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생산된 지리지식은 다른 영역으로 전달되어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자극한다. 다시 말해 학문지리에서 생산된 지식은 학교지리에 이용되고, 응용지리에 활용되고, 대중지리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들 영역에서 생산된 지식은 다시 학문지리로 이전되어 새로운 지리지식의 생산을 자극한다. 또한 학문지리지식은 학교지리를 통해 대중지리지식으로 전환되고, 실용적인 응용지리지식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중지리지식은 학교지리로 이전되어 학교지리의 지식구성에 이용된다.

이와 같이 지리지식은 영역간 지식의 순환체계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의 지식순환의 단절은 다른 영역의 지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지리학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리학이 위기를 극

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리지식의 영역이 함께 성장해야만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논리의 적용으로 지식의 사회적 실용성과 일상생활의 효용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학문지리와 학교지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응용지리와 대중지리의 발달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의 발전 없이 이루어지는 응용지리지식과 대중지리지식의 발달은 기능적이고 보편적이며 현실적인 지식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리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리학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지리에 의한 지식의 생산과 축적, 학교지리에 의한 지식의 전달, 응용지리와 대중지리에 의한 지식의 사회적 활용과 일상생활의 적용, 그리고 각 영역에서 생산된 지식이 다른 영역의 지식생산과 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순환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지식의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리학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념적인 연구로 사례를 통한 경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주

- 1) 한국 최초의 지리 관련학과는 194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었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창설 또는 개편·폐과되어, 현재 18개의 지리교육과(지리교육전공 포함)와 9개의 지리학과가 있다. 이 가운데 17개 학과가 1970~80년대 창설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1개의 학과만이 창설되었다.
- 2) 학문지리는 시대적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순수지리'와 '응용지리'의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응용지리는 학문지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지리와 응용지리는 추구하는 지식의 목적과 가치, 기능 및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순수)학문지리와 지식의 사회적 활용성을 추구하는 응용지리로 구분하였다. 또한 학교지리를 지리학의 한 영역인 응용지리의 한 분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교과 교육학의 한 부분으로 취급할 것인가? 는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활용되는 지리지식을 학교지리지식,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용되는 지리지식을 응용지리지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학교지리는

교육대상에 따라 초등학교 학교지리와 중학교 학교지리, 고등학교 학교지리 그리고 대학교 학교지리로 분류되지만, 본 연구에서의 학교지리는 고등학교 학교지리를 의미한다.

- 3) 2009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사회 3과(역사, 일반사회, 지리)에서 지리만 한 과목(경제지리)이 줄어들었으며, 2011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반사회와 함께 만들어진 공통사회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2011년 수능능력시험 개편으로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의 수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으며, 2013년 한국사의 필수과목 지정으로 지리수업시수의 축소가 예상된다.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으로 학교지리는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학교지리의 약화는 지리교사의 수요를 감소시켜 대학에서 지리교육과의 폐지 및 정원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 4) 대학 교양과목의 대부분이 학과의 주도로 개설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지리 관련학과의 설치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지리지식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학교지리에서 형성된다. 김대훈(2010년)은 대학에 설치된 지리 관련학과의 학생 수를 추산하여 대학생의 약 99.7%는 고등학교의 졸업 이후 더 이상 지리지식을 배우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학교지리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리교육'이 아니라 '지리'이기 때문에 학교지리의 약화는 학문지리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문헌

- 권동희, 2007, 지리학의 대중화, 대한지리학회보, 94, 1-2.
- 권용우, 2009, 국민 속에 파고드는 지리학, 대한지리학회보, 101, 1-2.
- 김대훈, 2010, 긴 호흡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지리학회보, 107, 16-19.
- 남영우, 2010, 지금 地理學과 地理教育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한지리학회지, 45(6), 691-697.
- 류재명, 2000, 지리교육과 삶의 질: 21세기 지리교육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35(2), 341-349.
- 류재명, 2004, 지리 콘텐츠의 디자인 컨셉트와 그 개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춘계학술 대회 요약집, 87-93.
- 박삼옥, 2003, 지리학 발전과 대중화를 위하여, 대한지리학회보, 76, 1-3.
- 박삼옥, 2004, 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대한지리학회보, 84, 1-3.
- 박선미, 2004, 한국의 지리교육과정론, 문음사, 서울.
- 서태열, 2002, 지리교육과정에서 '내용'으로서 '지

- 식'에 대한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13-25.
- 옥한석, 2010, 대중화와 전문화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교양과 지리경영으로의 지리학 방향 전환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5(6), 735-747.
- 유나영 역, 2007, 분노의 지리학, 천지인, 서울(Harm De Blij., 2005, *Why Geography Matters: Three Challenge Facing America: Climate Change, The Rise of China and Global Terrorism*,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이종원, 2007, 지리학의 대중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지리교육 캠페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1), 37-49.
- 이철우, 2011, 전환기 지리학과 지리학계의 발전에 대한 성찰과 도약을 위하여, 대한지리 학회보, 109, 1-2.
- 이희상, 2008, 대중지리와 학교지리의 문화적 텍스트로서 모험소설 읽기: 쥘 베른의 『80일 간의 세계일주』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3), 215-235.
- 최병두, 2006, 지리학의 발전과 지리학자의 과제, 대한지리학회보, 89, 7-8.
- Berry, B. J. L., 1980, Creating future geograph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 449-458.
- Bonnett, A., 2003, Geography as the world discipline: connecting popular and academic geographical imaginations, *Area*, 35, 55-63.
- Chevalier, J-P., 1997, Quatre pôles dans le champ de la géographie? *Cybergeo: European Journal of Geography*, 23, 1-10.
- Clout, H., 2005, Geographers in their ivory tower: academic geography and popular geography in Paris 1931,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7(1), 15-29.
- Frazier, J. W., 1982, *Applied geography: selected perspectives*, Prentice Hall, New Jersey.
- Frazier, J. W., 1994, Geography in the workplace: A personal assessment with a look to the future, *Journal of Geography*, 93, 29-35.
- Gregory, D., Johnston, R., Pratt, G., Watts, M. and Whatmore, S., 2009,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5th ed.)*, Blackwell Publishers, London.
- Johnston, R. J. and Sidaway, J. D., 2004, *Geography and Geographer: Anglo-American Human Geography since 1945(sixth ed.)*, Arnold, London.
- Pacione, M., 1999, Applied geography: in pursuit of useful knowledge, *Applied Geography* 19, 1-12.
- Palm, R. and Brazel, A., 1992, Applications of geographic concepts and methods, in Abler, R. F, Marcus, M. G and Olsson, J. M.(eds.), *Geography's inner worlds: Pervasive Themes in Contemporary American Geography*, Rutgers Univ. Press, New Jersey, 342-362.
- Sant, M., 1982, *Applied geography: practice, problems and prospects*, Harlow, Longman.
- Smith, E. R., 2001, From the holiday to the academy: implications for physical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arising from 'popular' field-based geography in Dorset,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5(2), 241-248.
- Taylor, P., 1985, The value of a geographical perspective, in Johnston, R. J.(ed.), *The future of geography*, Methuen, London, 92-110.
- Winter, C., 2009, Geography and education I: the state of health of geography in school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3(5), 667-676.

(접수: 2014.08.26, 수정: 2014.11.06, 채택: 2014.11.12)